



보도시점 2026. 5. 28.(목) 11:00 배포 2026. 5. 28.(목) 09:00

희토류 재자원화 추진 현장 점검,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 국내 양산 기반 최초 구축

- 임기근 차관, 추경으로 신규 반영한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 지원기업 (5.27일 선정) 방문
- 희토류 재자원화 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원료확보·양산능력 검증사업 추경 반영, 금년 중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원료 100t 확보
- 폐영구자석 회수를 위해 초기단계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6월부터 지원 (산업부)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기후부) 등 선행 절차 8월까지 신속 추진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5.28일(목) 대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주)’를 방문하여 금년 신규로 추진 중인 핵심광물 재자원화(본예산) 사업과 희토류 재자원화사업(추경)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 집행점검 현장방문 개요 >

- ▶ 일 시: '26.5.28.(목) 11:00~12:00
- ▶ 장 소: 성림첨단산업(주)(대구광역시 달서구)
- ▶ 참석자: (정부) 기획예산처 차관, 재정집행과장, 산업부 정책기획관 등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자원순환사업처장, 비축사업처장 등
(기업) 성림첨단산업(주) 및 에코레온(주)* 대표

* 에코레온(주):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업(성림첨단산업 자회사)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함께 핵심 전략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안정화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로, 공급 차질 발생 시 산업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전략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개별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 핵심자원으로서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26년 본예산으로 신규 반영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지원 사업 중 **희토류 분야 재자원화 사업**을 별도 지원(10억원)하고 있으며, 추경으로 **희토류 재자원화 원료 확보**(60억원, 100톤)와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능력 검증**(20.8억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희토류 원료 확보 사업으로 본격적인 원료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확보된 원료와 양산능력 검증을 바탕으로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추경 사업의 골자이며, 이는 본예산의 **국내기업 희토류 분야 재자원화 시설지원과 연계하여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5.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30년까지 50%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하였다. 특히, **재자원화 분야**는 단순 폐기물 재활용을 넘어 **공급망 복원력과 산업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영역이다. 금일 방문한 기업은 **폐영구자석 처리를 통해 희토류를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대표 국내기업으로,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금년 중 양산 역량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 품목별 특성에 맞추어 ▲국내 생산 촉진, ▲비축시스템 개편, ▲해외 생산능력 구축, ▲수입 다변화 등 4대 전략에 따라 추진 (희토류는 '29년까지 3년간 집중 확보)

이날 현장에서 기업은 **희토류 재자원화**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원료 확보와 규제 합리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특히, 폐영구자석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료수거 및 **활용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데 정부의 초기단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재정지원과 함께 순환자원 인정·지정(기후부) 등 제도적 뒷받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 차관은 “**희토류 재자원화 사업**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료 확보와 생산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8월까지 인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기후부 등과 함께 **규제개선·선행절차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집행 병목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재정사업의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김남희 (044-214-3270)
	재정집행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misjuly@korea.kr)
			사무관	남동현 (totozl@korea.kr)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김효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차찬석 (mitypen@motie.go.kr)

